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받게 된 경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 성령집회, 토요일을 앞두고 이제 지도자들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날이 수요일 새벽 2시경에 그 문자를 받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기도를 하는 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안들리는 거예요. 평소에 잘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이 너무 안들리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왜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또 계속 했어요. 결국 수요일날 말씀을 받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하실 말씀이 혹시 없으신가.’ 하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내가 받는 게 뜻이 아닌가.’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려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수요일날 딱 한마디 하셨어요. “기다려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요일날 하루종일 “기다려봐. 기다려봐” 하셔서 저는 ‘어떻게 기다리라는 거지. 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하고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서는 원래 여기 광주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명을 택해서 말씀을 주실려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영계의 문이 열려있고 주님께서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실려고 하고 저희들을 한 명 한 명을 만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때문에 주님께서 끝까지 여기 계시분들 통해서. 왜냐면 광주에 사신분들이 심정이 있기때문에 더 깊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려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목요일 새벽 기도를 1시부터 계속 했습니다. 각자 개인 기도를 하고 또 저희 스타 교회에서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개인기도, 합심기도,찬양... 흐름에 맞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틈틈이 개인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광주에 성령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한마디만 해주세요.” 라고 계속 간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3시가 넘고 4시가 넘은 거예요. 너무 이제 마음이 ‘어, 예수님 정말 하실 말씀이 없나보다. 나는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간구하다보면 사탄의 계시를 받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닌가보다. 예수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만약에 제가 뜻이 아니면 주님 말씀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부족해서 말씀을 못받으면 안되니까 저는 기도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데 회개 기도가 나오더라구요. 광주에 대해서, 저는 광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광주를 위해 회개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광주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성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너무 심정 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는 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눈물 참기는 정말 짱이었어요. 제가 가정사가 너무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계속 있다보니까 내가 울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내가 울면 우리 가정이 나를 보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질걸 알기때문에 저는 눈물 참기가 정말 짱이었어요. 그런데 광주의 모든 이성의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예수님이 우시는 걸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슬프게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울었어요. “예수님! 용서해달라”고 “지금 있는 사람들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 더 많은 사랑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저희 스타 합심기도가 이어졌어요. 합심기도를 하고 개인기도를 하는 데 그때도 예수님이 말씀을 안하시는 거예요. 심정만 느껴지고. “평소같으면 말씀하실 때가 됐는데.”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4시 반인거예요. ‘이제 내 개인기도를 해야겠다.’ 했는데 그날 개인기도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개인기도를 하고 들어가서 좀 쉬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깨달음이 오더라구요. 이번주 말씀 주제 “내가 찾을 때까지 찾고 내가 응답할 때까지 불려라.” 딱 그 주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예수님 하실 말씀 있다. 분명히 있으시다.’ 그리고 여기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도를 했을 꺼라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고 분명히 한 마디 해주실꺼라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 지금 이 시간부터 예수님이 광주에 말씀 안주시면 무릎 안펼거라고.”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5시가 넘고 5시 10분, 20분.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5시 25분 예수님이 한 마디 딱 해주셨어요. “나와 일체되어라.” 네, 할렐루야. 저는 원래 마음으로 음성을 듣고 그래요. 그런데 광주에,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광주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귀로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와 일체되어라.” 하시는 데 뚜렷한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께서 쪽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서는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사랑하고 깊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럼 이 시간 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시 24분경 받은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나와 일체되어라. 전남,광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전해주세요. 긴장되지? 늘 모든 것을 할 때에는 떨림으로 긴장하며 근신하며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성령집회는 하늘 아버지와 성령 어머니 나 예수를 너희 각자 한명 한명의 몸에 받고 새로운 생명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하니 얼마나 더 긴장하고 준비해야 되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주기 전에도 이 자가 응답하실때까지 부른다고 하며 기도하기에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이 시간 이렇게 영광의 주로 왔다. 기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나는 너희에게 한 마디 해주고자 했다. 그러나 늘 모든 일에는 조건이 필요하고 주를 맞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이와같이 한 것이다. 그 날에도 이와 같다. 성령집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나는 이미 함께 하며 너희에게 줄 성령 그리고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가득가득 준비해 놓을 것이다. **(토요일 성령집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또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오는 지 보겠노라. 너희에 기도의 마음과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보겠노라. 너희의 죄의 그릇을 얼마나 깨끗이 비워 오는 지 보겠노라. 같이 오는 생명들 모두의 죄도 대신 회개해주고 꼭 전초를 확실히 하여 100프로 녹아질 생명, 알곡같은 생명들 데려와야 한다.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명 준비시켜 주지 않음으로 영원히 구원의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확실하게 해야한다. 나와 완전히 일체되어라. 일체되어 모든 사탄 마귀 열썬도 하지 못하게 몰아내자. 성령집회에 나는 너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 순간 간절히 구하고 있는 자, 내가 주는 성령을 받으리라. 우리 더 뜨거운 기도의 조건으로 마지막 포도송이 마지막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많은 생명 녹여보자.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너희와 함께 내가 한 몸 되어 하먼 되는 것이다. 생명들 말씀에 집중시켜 주어라. 나는 부흥강사의 몸에 들어가 함께 할 것이다. 너희 모두에게 은혜와 성령을 가득 받게 해줄게. 눈과 눈, 우리 마주치자. 내가 그의 육을 통해 너희와 눈을 마주치며 볼 것이다. 하나되어 전남, 광주에 땀 흘린 하늘 아버지의 한을 속 시원히 풀어 드려보자. 알겠느냐? 너희 또한 하나되어 준비하고 서로 의견 존중해주고 서로에 대한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지도자들부터 어서 회개하고 마음 깨끗이 하라. 그리고 생명들의 이성의 죄, 사랑 배반의 죄. 회개케 하여라.

사랑하는 나의 신부 전남,광주!

우리 함께 해보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 모두 안녕.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와 구원 말씀이 나온 그 주에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회개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선생님께 보내드렸는데 말씀에 대한 답이 온거예요. “그것도 같이 전해줘라.” 하셔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1.23. 회개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사랑하는 나의 섭리 신부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뜻하신 하늘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지치지 않고 성령을 받기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때가 정말 좋은 때이다. ‘회개하라’의 말씀은 나의 사랑이 가득 담긴 말씀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섭리 신부!

너희는 나 예수의 마음을 알지 않느냐? ‘회개하라’는 말은 곧 너희를 사랑해서 어서 깨끗케 해주게 하기 위함이다. 선생을 통해 나 예수가 ‘회개하라’는 말을 해주고 지켜보며 눈물로 간절히 회개하는 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용서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회개도 해야 할 때 어서 속히 하라. 그 동안 지은 죄 모두 회개하고 섭리사와 각 민족, 세계 위해, 가정 개인 위해 기도하라. 어서 속히 회개함은 나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지름길이니라. 나는 너희의 그 모든 죄 회개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 그러니 어서 속히 회개하여 깨끗한 의에 옷을 입자. 결혼식때 더러운 옷을 입고 하면 누가 신부인지 알아볼 수 없다. 그러니 빛나고 어떤 옷보다도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한다. 남자이고 여자이고 그 날에는 모두 나를 신랑으로 맞아 내가 함께 천국에 데려간다. 그러나 더러운 죄의 옷을 입으면 천국문에서 막혀 들어갈 수 없고 올라가기도 전에 이미 사탄의 힐문으로 데려갈 수가 없느니라. 회개의 문을 열고 너희의 그 손톱만한 죄까지도 모두 용서해주기 위해 나 예수가 두 팔 벌려 기다리니 어서 속히 회개하라. 이 시대의 내가 택한 의인 선생도 무릎 꿇고 무릎이 닳도록 깨끗이 회개하며 세계 민족 그리고 너희 위해 기도하는 데 어찌 누가 깨끗함을 받았다 할 수 있느냐? 그와 같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남이라. 모두 작은 죄까지도 날날이 회개하여 깨끗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 너희가 그토록 애원하는 뜨거운 성령을 충만히 채워줄 것임이니라. 뜨거운 눈물의 회개. ‘오늘도 주앞에 무릎을 꿇고 사랑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기 전에 나의 죄가 있어 먼저는 나의 죄 용서를 구합니다. 주와 더 뜨거운 사랑을 하고 싶어 난 모든 마음을 깨끗케 비워 놓습니다. 그리 할 때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이 간절한 사랑을 받아주실 수 있을 테니까요.’ 진정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리 해야 하느니라. 진정 우리가 뜨거운 사랑 하길 원한다면 그리 해야 하느니라. 맞다. 네가 진정한 깊은 회개의 도를 깨달았도다. 나는 오늘도 나의 이름을 부르고 깨끗이 나를 맞을 준비를 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자를 찾아 그와 뜨거운 사랑을 하고 싶다.

신부여! 너희 모두도 이 깊은 회개의 도를 깨달아 그리 하길 원한다. 신부여! 너희 모두가 이

깊은 사랑의 도를 깨달아 깊은 사랑하길 원한다. 하늘과의 사랑은 높고 깊은 사랑, 사랑이다.
사랑하는 섭리 신부들 모두 안녕.
회개의 깊은 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말씀>

이 말도 꼭 전해줘. 선생의 이치에 계시니까. 결혼 전 신부가 너무 바빠서 동당거리다 일주일이나 목욕탕을 못갔다. 결혼식 당일 날, 오후가 결혼식이니까 자기 생각대로 아침에 목욕하고 미장원 가고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미용실에서 “8시에 이 시간 밖에 없으니까 빨리 오라.”고 하여 미용실을 갔단다. 목욕탕을 갈 수가 있어야지. 오전에 못가고 결국 오후에 결혼식을 간 것이다. 옷이 땀과 때가 묻어 뽀뽀하고 정말 뽀 보아도 기분이 안나요. 대중화장실이라도 잠깐 가서 씻고 싶은 심정이야. 킁킁. 미치겠다. 결국 화장실에 가서 최종 방법. 옷을 벗어 대충 속옷만 갈아 입고 휴지통에 버리고 대강 씻고 나왔다. 휴. 밖에서 빨리 나오라고 해서 나오니까 곧 신부 입장. 그래도 뽀뽀한 것은 대강 씻었으니 다행이다. 날아갈 것 같다. 죄는 때와 더러운 것이라고 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밤잠 안자고 어젯 밤에 씻었을 것인데. 주님 맞는 신부들에게 빨리 외쳐 회개시켜라. 그날 첫날밤 그 신부와 신랑은 만났다. 다행히 호텔에서 씻었다. 그 때는 결심하고 안 미루고 씻었다. 섭리인들이 지금 이 상황에 처했다. 회개, 때씻기, 죄씻기. 인간 마음이 핵심이다. 죄 닦아야 돼. 마음 보면 냄새나는 자, 침 발라서라도 닦아야 돼. 때 지나면 물 없다.

알지? 모두 회개해. 안녕.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기도문>

그 고통에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힘들어도 한 마디 힘들다 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도 이들도 이 시간 회개하네요. 하나님! 하나님! 제발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저희들이 기도하는 기도 모두 들어주세요. 내가 이들 위해 그리고 세계 위해 눈물 흘려도 십자가의 고통 받아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들의 죄 깨끗케 하여 우리 함께 천국에서 기뻐하며 함께 하는 날 생각하니 행복합니다. 내가 이들 손 꼭 잡고 가겠습니다. 하늘 아버지도 이들 손 놓지 말아주시고 이들이 다시 만나는 그 날까지 꼭 참고 힘들어도 사랑 기억하며 기다리는 신부 되게 하소서. 나는 이제 가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난 이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영원히.

신부야! 나를 만날 수 없어도 내 음성 들을 수 없어도 나와 나눈 사랑 기억하며 계속 나와 대화하자. 너희 두고 가니 더 빨리 올게. 나의 사랑하는 신부 데리러 곧 올 것이니 모두 준비하여 만나자. 나도 너희 위해 너희도 나 위해 만날 준비하며 오늘 이곳에 모인 너희 모두 한 명 한 명 손잡아 주었다. 안아준 자도 있고 너무 눈물로 회개하여 내가 기특해서 나의 품안에서 올게 한 자도 있다. 각자 너희는 알 것이야. 매일 나와 이같이 만나는 것이다.

사랑해. 사랑해. 영원히 함께 하자. 모든 기도 듣고 함께 해줄게. 사랑한다

안녕.

감사합니다.